

“고객의 가슴을 뛰게 하라”... 구광모 ‘디자인 경영’ 고백

(LG 대표)

서초 ‘디자인 경영센터’ 방문
올 첫 현장경영 키워드 디자인
각 사업부문 인재 만나 격려
개방적인 조직, 다양성 등 당부

구광모 LG 대표가 고객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현장경영에 돌입했다.

18일 LG에 따르면 구 대표는 17일 오후 LG전자 서초 R&D 캠퍼스 ‘디자인 경영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일정은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데 가장 첫 단계인 디자인 분야 경쟁력을 살피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계획됐다.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한 고객 가치 실천을 위한 행보다.

구 대표는 고객 시선을 사로잡고 가



구광모 LG 대표(오른쪽)가 17일 서울 서초 R&D 캠퍼스 ‘디자인경영센터’를 방문, 미래형 커넥티드카 내부에 설치된 의류관리기의 고객편의성 디자인을 살펴보고 있다. /LG

슴 뛰게 하며 다음을 기대하게 만드는 디자인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직과 일하는 방식이 개방적이고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철저하게 고객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제품들을 살펴보고 고객 기대를 뛰어넘는 디자인 요소를 확인했다. 스마트도어와 벽밀착 올레드 TV, 커넥티드카와 디지털 콕핏 등이다.

구광모 대표는 “디자인은 고객이 우리 제품에 대해 첫 인상을 받고 사고 싶다는 가치를 느끼는 처음 순간이자,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는 내내 섬세한 배려와 편리함에 감탄하고 고객을 돌보이게 만들어 주는 것도 디자인일 것”이라며 “디자인이야말로 고객 경험과 감동을 완성하는 모든 과정”이라고 디자인 담당자들의 자부심을 고취했다.

이날 구 대표 방문에는 LG전자 노창호 디자인경영센터장과 각 사업부문 디

자인 연구소장, 상품기획 담당과 책임급 사업가 인재들이 함께했다.

노창호 센터장은 구 대표에 고객의 페인 포인트 등 핵심 가치를 디자인적 요소로 반영하고, 고객 가치 기반 디자인이 최종 양산으로 이어지도록 디자인 리더십을 확보하는 등 디자인 전략 방향도 설명했다.

구 대표는 참석한 리더들에 고객 감동 품격을 높여달라며,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

LG 관계자는 “이번 디자인경영센터 방문을 계기로 코로나19 이후 분위기를 전환하고, 향후 국내외의 고객 접점 및 미래준비 현장을 순차적으로 찾아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실속형 스마트폰 맞아?’... 카메라 4개 탑재

LG전자 실속형 스마트폰 3종 선배
2분기부터 중남미·유럽 순차 출시
6.5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 탑재

LG전자가 실속형 스마트폰 3종을 올해 2분기부터 중남미 및 유럽 지역에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LG전자는 실속형 스마트폰 3종 LG K61, LG K51S, LG K41S 후면에 표준, 초광각, 심도, 접사 등 렌즈 4개를 탑재했다. 특히 LG K61 4800만 화소, LG K51S 3200만 화소, K41S 1300만 화소 표준 렌즈를 각각 장착,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대등한 카메라 성능을 갖췄다. 실속형 3종에 공통으로 탑재된 접사 렌즈를 사용하면 3~5cm 거리의 가까운 피사체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다.

LG전자는 실속형 3종에 6.5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전면 베젤을 최소화했다. 전면카메라가 차지하는



(왼쪽부터)LG K61, LG K51S, LG K41S. /LG전자

면적도 줄였다. 이를 위해 LG K61, LG K51S에는 ‘편지홀’, K41S는 ‘V노치’ 스타일 디자인을 적용했다.

LG전자는 실속형 3종의 배터리, 음향, 내구성 등 핵심 기능에 집중함과 동시에 멀티미디어 기본기도 향상시켰다. 4000mA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동영상 시청, 웹서핑 등 전력 소비가 많은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배터리 걱정을 덜었다.

입체 음향의 강점은 그대로 계승했

다. 실속형 3종은 DTS:X 3D 입체 음향 기능을 탑재, 최대 7.1채널의 영화관 같은 고품격 입체 음향을 구현한다.

이외에도 실속형 3종은 미국 국방부 군사표준규격인 ‘밀리터리 스펙’을 통과, 내구성도 강화됐다. 이 표준은 군 작전을 수행하기에도 충분한 내구성을 갖췄다는 의미로 저온(포장상태·비포장상태), 습도, 고온(포장상태·비포장상태), 진동, 분진, 방수 등을 테스트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LG헬로비전, 기가인터넷 커버리지 확대

기존 30%대→99%로 끌어올려
LGU+와 협업으로 시너지 발휘

LG헬로비전의 권역 내 케이블 기가 커버리지가 99%까지 확대됐다.

LG헬로비전은 LG유플러스와의 협력으로 케이블 기가 커버리지를 확대해 기가인터넷 확산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LG유플러스의 인터넷 망을 임차해 기가 인프라를 추가 확보해 안정적인 기가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기가인터넷을 시작으로 양사 시너지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협력으로 LG헬로비전은 기존 서비스 권역 내 기가 커버리지를 99%까지 끌어올렸다. 케이블 특성상 케이블 광·동축케이블 복합망(HFC) 인터넷에 주력했던 LG헬로비전은 기존 30%대였던 기가 인프라를 개선하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LG헬로비전은 99%의 커버리지를 기반으로 기가인터넷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방송·인터넷·모바일 결합이 견고해지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기가인터넷을 주력 상품으로 성장시켜 케이블TV의 재도약을 견인하



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LG헬로비전의 기가인터넷 상품은 통신사 대비 최대 36% 저렴한 것이 강점이다. 기가인터넷과 초고화질(UHD) 방송을 결합한 주력 상품의 3년 약정가는 2만원대로, 동일 품질의 통신사 상품과 비교해 1만원 이상 저렴하다.

통신사의 휴대폰을 사용 중인 경우 동등결합을 통해 인터넷 요금의 20%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다. 동등결합은 통신 3사의 휴대폰과 LG헬로비전의 인터넷을 결합하면, 휴대폰과 인터넷 요금을 각각 할인 해주는 제도다. 통신 3사는 자사 유·무선결합과 동일한 할인을 제공하고, LG헬로비전은 추가로 20%를 할인해준다.

/김나인 기자 silkni@

LGU+, 5G 가입하면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

‘베스트 오브 구글’ 프로모션
6개월간 혜택, 27일부터 신청
삼성 ‘갤럭시 S20’부터 적용

LG유플러스가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 구글과 손잡고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 비디오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는 밀레니얼 고객(20대~40대 초반)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LG유플러스는 모바일과 홈 서비스 부문에서 구글과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 ‘베스트 오브 구글’ 프로모션을 5G 가입자에게 최대 1년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프로모션은 유튜브 프리미엄과 구글 원 유료멤버십을 각각 최대 6개월간 무료 체험할 수 있고, 구글플레이 포인트 골드레벨을 1년간 제공하는 서비스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모든 유튜브 영상



을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는 멤버십 서비스이며, 구글 원은 100기가바이트(GB)의 클라우드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글플레이 포인트 프로그램은 구글플레이가 제공하는 리워드 프로그램으로 유료 앱·게임, 구글플레이 영화 등 구글 플레이 내 구매 활동 시 포인트가 적립되는 시스템이다. /김나인 기자

이 프로모션은 올해 첫 5G 단말인 삼성전자 ‘갤럭시S20’부터 적용되며, 오는 2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5G 신규자에게는 신청 시점으로부터 12개월 동안 골드 등급이 부여된다. 가장 낮은 등급인 브론즈 등급인 경우 결제금액의 1%를 적립할 수 있으며, 골드 등급은 1.3%의 포인트가 적립된다.

한편, LG유플러스와 구글은 2017년 U+tv리모콘 내 구글 어시스턴트 전용 버튼, U+tv 아이들나라 앱 내 ‘유튜브 키즈’ 기본 탑재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모바일 전 가입자 대상 유튜브 프리미엄 3개월 무료체험을 제공했다. 지난해부터 가상현실(VR) 콘텐츠에 제작 및 공동 투자를 통해 LG유플러스의 VR 전용 플랫폼인 U+VR과 구글의 유튜브에 K-콘텐츠를 공급해오고 있다. /김나인 기자

대한항공 퍼스트클래스서 삼성 헤드폰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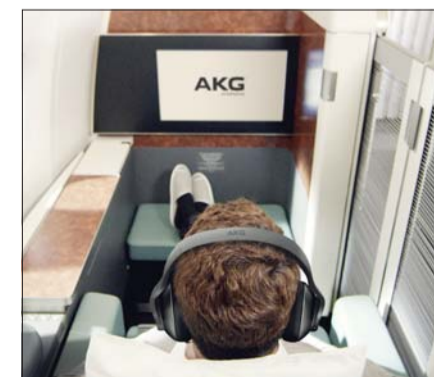
AKG 헤드폰 N700 공식 선정
노이즈캔슬링·토크 쓰루 탑재

AKG 헤드폰 N700이 대한항공 퍼스트클래스에 제공된다.

삼성전자는 오디오브랜드 AKG가 최근 대한항공 퍼스트클래스 전용 공식 헤드폰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AKGN700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탑재한 제품으로, ‘토크 쓰루’ 기능이 있어 헤드폰을 벗지 않고도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디자인도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졌다. /김재용 기자



90도 회전 가능한 폴더블 디자인과 조절식 헤드 밴드로 휴대도 간편하다. 그러면서도 알루미늄 외관과 가죽 소재로 프리미엄 디자인을 완성했다.

/김재용 기자